

의복의 인상형성이론에 대한 연구동향

李京和·羅秀任*

상명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A Tendency of Study on Theory of Impression Formation by Clothing

Kyung-Hwa Lee and Soo-Im Rha*

Graduates School, Dept. of Textiles and Clothing of Home Economics,
Sang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目次

Abstract	연구동향
I. 서론	1. 인상형성이론 연구의 연도별 분석
II. 인상형성이론의 고찰	2. 인상형성이론 연구의 논제별 연구동향분석
1. 인상형성이론	
2. 의복과 인상형성과의 관계	IV. 결론
III. 의복의 인상형성이론에 대한	참고문헌

Abstract

Clothes are a kind of silent language that tells someone who has in wear and has great influence on person perception and impression formation. Present paper aims, therefore, to investigate the tendency of its study to offer information that may assist future studies.

Doctorial dissertations, master's theses and journal articles related with clothing and textiles in domestic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period and subject. Analys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periodic vicissitude, the number of study on impression formation was before 1990, but tend to increase in 1990's.

Second, as for the subject, while the studies focused on impression formation wearer on the first half of 1990's, they were segmented and presented wearer's form and appearance in detail ; computer simulation was also made use of in various papers.

In conclusion, impression formation seems to become a rather important subject for further study.

I. 서론

사람들은 대인관계의 경험으로부터 더러는 불완전한 가운데 의복과 성격에 관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고 있으며 그것에 근거를 두고 타인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쉽게 형성한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이 착용한 특정한 의복 내지는 의복 특성만으로 그 사람이 A 또는 B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쉽게 추측하므로 의복은 타인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초기 접촉 상황에서 대인지각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神山進¹⁾에 의하면 의복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느냐 하는 대인지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 한 측면은 특정한 의복을 착용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성격지각 내지 성격에 대한 인상형성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의복이 타인의 성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이 있었으며 또한 의복의 형태나 색에 따라 타인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나 사진을 처음 본 후에 거의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주어진 정보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색, 체격, 의복 스타일과 같은 가시적 속성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정서, 성격특성, 태도 등과 같은 내부상태까지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타인에 대한 인상은 그 사람의 외모, 행동, 상황 또는 사건의 맥락을 통하여 형성되므로 다른 사람과의 초기 접촉 상황에서 외모는 대인지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²⁾.

Gorden Allport는 “아주 짧은 시간동안 시각을 통하여 지각이라는 복잡한 두뇌작용이 일어나서 30초 동안 처음 본 사람의 성별, 나이, 체격, 국적, 직업, 사회계층이 판단되며, 그의 성격, 우월성, 깔끔함, 신뢰감, 성실성까지도 어느 정도 평가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첫인상은 우리에게 그 후에 오는 단서를 무시하거나 해석

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³⁾. 또한 타인에 대한 인상은 그 사람의 외모, 행동이나 사건의 맥락을 통하여 형성되므로 다른 사람과의 초기 접촉상황에서 가시적인 단서인 외모는 대인지각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의복을 중심으로 하는 인상형성은 착용자, 관찰자 및 대인지각이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 등의 세개의 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⁴⁾.

이인자⁵⁾가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할 때 의복 및 신체적 특성에 관한 인상과 아울러 지능, 성격 같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인상도 많이 형성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타인과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외모가 성격특성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도록 작용한 단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복이 단독으로 인상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과 의복과 다른 외모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복에 대한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동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의복에 대한 인상형성의 선행연구들을 연대별, 논제별로 파악하여 그 동향을 연구함으로써 앞으로 연구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과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의류학 관련연구의 학술지인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한국복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인상형성분야에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각 논문의 분류는 일차적으로 논문제목을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그리고 인상형성 분야를 대인지각, 인상형성,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으로 다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문헌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수집된 분석자료는 연도별, 논제별로 나누었으며 각 항목에 따른 변화추이를 살피기 위해 5년 단위로 분류하였다.

1) 神山進, 「被服心理學」, (東京: 光生館, 1987), p.12.

2) S.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McMillan Publishing Company, N.Y, 1985), p.231.

3)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1990), pp.39-40.

4) S. B. Kaiser, 전개서, p.235.

5)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1984), pp.35-42.

본 연구에서 분석된 석·박사학위논문은 국회 도서관에 소장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학위논문은 제외된 제한점이 있다.

II. 인상형성이론의 고찰

1. 인상형성이론

외모에 기초를 둔 타인에 대한 판단과정을 묘사하는 인상형성이론은 학자마다 다르나 본 연구에서는 인상형성이론을 대인지각, 인상형성,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대인지각(person perception)

실제 그대로의 사물·인물이 아닌 인간의 감각 체계에 주어진 정보를 인식하는 지각과정에서 지각대상이 사람인 경우를 대인지각이라 하며 그 대상인물의 심리적 소질에 관한 모든 것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⁶⁾.

이러한 대인지각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물을 지각할 때 보다 현저한 개인차를 보이며, 사물을 지각하는 대물지각과는 달리 자기를 참조해서 타인을 평가하므로 개인에 따라 지각의 차이가 심하며 지각대상에게 원인귀속을 할 수 있고, 지각자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지각대상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⁷⁾.

또한 대인지각과정은 사람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석할 줄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대인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특정한 성격특질에 대한 판단이 처음에 이루어지면 다음에 하게 되는 다른 특질에 대한 판단은 모두 이의 영향을 받는다는 후광효과, 타인을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의 대상자가 자기 자신과 비슷하

다고 가정하고 판단하려는 유사성 가정, 어떤 집단의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나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고정된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는 고정관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려는 편향적 경향을 보이는 긍정편향, 타인을 평가할 때에 판단할 대상의 독특한 특성보다 판단자 자신의 독특한 특성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좌우된다는 판단자의 속성, 사람들의 주어진 수많은 단서들 중 두드러진 것, 분명한 것, 눈에 띄는 것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각하여 인상을 형성한다는 두드러진 단서 등이 있다⁸⁾.

2) 인상형성(impression formation)

인상형성은 타인에게서 얻은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타인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과정이다⁹⁾. 또한 인상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의 핵심은 타인에 대해 제시되는 단편적인 여러 정보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어져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¹⁰⁾. 이러한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접근이론과 인지적 수학적 접근이론이 대표적이며 이 두 이론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단서로서 사람의 체격, 크기, 체형, 건강상태 등이 인상형성이 중요한 요인인 신체적 외모(physical appearance)가 첫 번째 단서 중의 하나이며, 한편 연령, 성별 등을 한층 더 넓은 신체적 외모의 결정요소이며 첫인상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몸짓, 눈길, 의사언어의 강조, 리듬, 억양 등의 비언어적 의사전달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무의식적으로 인상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람의 용모, 행동, 그리고 그가 속해있는 배경이나 상황 등도 인상형성을 이루는데 단서로 작용한다¹¹⁾.

6) 정양은, 「사회심리학」, (서울:법문사, 1982), p.177.

7) Schneider, D. J., Hastorf, A. H. & Ellsworth, P. C., *Person perception*(2nd ed.). Reading, MA: Addison-Wesley, (1979), pp. 8-10.

8) 강해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교문사, 1988), pp. 50-53.

9) 정양은, 전게서, p.177.

10) 고예란,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 57.

11) 강해원, 전게서, pp.48-49.

3) 인상형성의 평가차원

첫인상의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측면을 평가적 차원, 즉 '그 사람을 좋아하는가?' 혹은 싫어하는가?' 얼마나 좋아하는가 또는 싫어하는가?'의 차원이다.

이 평가적 차원은 전체인상을 이루는 몇 개의 기본 측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많은 연구들은 평가(evaluation)가 대인지각의 가장 중요한 기본차원이 된다는 가설을 지지해 왔다¹²⁾.

전체인상을 이루는 3개의 기본측면들 즉, 평가, 능력, 활동성 차원 중에서 평가적 차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좋다' 또는 '나쁘다'는 인상을 갖게 되고 나면 그 측면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측면 및 다른 상황의 인상에게까지 평가적인 차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¹³⁾.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또한 몇가지 다른 양식들로 정보의 왜곡과 부정확을 유발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일관된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2. 의복과 인상형성과의 관계

타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복이 주는 단서는 착용자의 성격특성에 대한 관찰자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 인간행동과 의복에 대한 선행연구는 착용자의 의복이 그 개인의 성격특성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왔다¹⁴⁾.

인상은 현실상황에 영향을 주며 한 번 형성된 인상은 고정적이고 변화에 저항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순되는 인상의 얼굴에서조차도 그들의 처음 인상을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의복

과 외모는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의복단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고정 관념적 단서는 지속적으로 첫인상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

Douty¹⁵⁾는 의복형성이 착용자의 인상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같은 모델이라도 착용한 의복에 따라 성격특성이 다르게 지각되었다고 밝혔다. Hamid¹⁶⁾도 의복유형과 성격특성 평가와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피험자들은 의복착용자의 얼굴에 의해서보다는 착용한 의복 유형에 의해 성격 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형성에 대한 의복의 영향은 의류학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의복범주에 따른 대인지각 연구는 최근에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대인지각과정에서 의복이 어떠한 형태로 범주화되며 이때 사용되는 범주전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의복 및 의모를 통한 인상형성 과정에서 의복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데,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범주전형으로 나타난 것으로는 형태적 측면, 디자인 측면, 의복의 성능, 격식차림, 유행성 등이 있다¹⁷⁾.

Ⅲ. 의복의 인상형성이론에 대한 연구동향

1. 인상형성이론 연구의 연도별 분석

인상형성이론의 연구동향을 연도별로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인상형성이론을 학회지와 논문별로 대인지각, 인상형성,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으로 분류하여 각 학회지의 논문별의 연도별 변화추이와 인상형성의 세가지 분야에서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고자

12)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1996), pp.41-42.

13) Sears, D. O., Freedman, J. L., & Pepleau, L. A., *Social Psychology* (5th ed.).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1985), pp.51-52.

14) 이인자·송선옥, "첫 인상에 미치는 의복과 인물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1), (1982), pp. 27-38.

15) Douty, H. I., Influence of clothing on perception of persons, *Journal of Home Economics*, 55(3), (1963), pp.197-202.

16) Hamid, P. N., Style of dress as a perceptual cue in impression formation, *Perceptual and Moot Skills*, 26, (1968), pp.904-906.

17) Lennon, S. J. & Miller, F. G. Saliency of physical appearance in impression form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1984), pp.95-104.

<표 1> 인상형성이론 연구의 연도별 분석

출 처 년 도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한국복식학회지			석·박사논문			계 (%)
	대인 지각	인상 형성	평가 차원*	대인 지각	인상 형성	평가 차원	대인 지각	인상 형성	평가 차원	대인 지각	인상 형성	평가 차원	
1980년 이전										1	2		3 (3.8%)
1980년 ~1984년					1						2	3	6 (7.7%)
1985년 ~1989년						1				1			2 (2.6%)
1990년 ~1994년				1	5	10		2		2	8	3	31 (39.7%)
1995년 ~1998년	1			5	10	9		1	2	2	4	2	36 (46.2%)
계	1			6	16	20		3	2	6	16	8	78
합계	1			42			5			30			(100%)

평가차원*· 평가차원은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을 말함.

한다.

먼저 각 학회지와 석·박사논문의 인상형성이론의 연도별로 변화를 보면 대한가정학회지는 1959년에 창간된 이후로 인상형성 이론에 대한 연구는 1995년~1998년도에 대인지각에 대한 논문 1편만이 발표되었다. 이는 대한 가정학회지는 가정학 전반에 걸쳐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어 인상형성이론의 논문이 적다고 생각된다.

한국의류학회지는 1977년에 창간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분야의 발표논문수가 가장 많았다. 초기인 1980년대에는 인상형성이론에서 인상형성과 인상형성의 평가차원분야의 논문으로 1~2편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 들어 인상형성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1990년~1994년에는 인상형성이론에서 인상형성의 평가차원논문이 10편, 인상형성의 논문이 5편, 대인지각의 논문이 1편으로 인상형성이론 연구에서는 평가차원의 논문이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995년~1998년에는 인상형성이론 연구에서 인상형성의 논문이 10편, 인상형성의 평가차원 논문이 9편, 대인지각의 논문이 5편으로 인상형성에 대한

연구가 현대에 와서는 더욱 활발해 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상형성이론의 총 발표분야를 보면 평가차원의 논문이 20편, 인상형성의 논문이 16편, 대인지각의 논문 6편으로 총 42편의 논문에서 인상형성의 평가차원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상형성이론 연구에서는 인상형성과 인상형성의 평가차원 논문이 증가하리라 예측된다.

이와 같이 한국의류학회지에 발표된 인상형성이론 연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비하여 대한가정학회지는 가정학 전반에 걸쳐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의류학회지는 보다 인상형성이론에 관한 연구논문이 적게 발표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복식학회지는 한국의류학회지와 같은 때인 1977년에 창간되었으나 인상형성이론 연구는 타 학회지와 비교해 볼 때 그리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이는 한국복식학회지는 한국복식사를 주로 발표하는 학회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발표된 인상형성이론의 논문을 보면 1990년~1994년 인상형성의 논문이 2편, 1995년

~1998년 대인지각의 논문이 1편, 평가차원의 논문이 2편으로 총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인상형성의 논문이 총 3편, 대인지각의 논문이 2편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의류학회지의 경향과 같이 인상형성이론 연구에서는 인상형성과 인상형성의 평가차원 논문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학위논문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석·박사학위논문은 1974년에 인상형성이론에서 인상형성의 논문이 2편, 대인지각 논문 1편이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 1990년 전까지는 9편이하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1990년~1994년에는 8편의 인상형성 논문의 5편과 1995년~1998년에 4편의 인상형성 논문 외 4편이 발표되어 총 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인상형성의 논문이 활발해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인상형성이론 연구의 대인지각, 인상형성, 인상형성의 평가차원 등 3분야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먼저 1980년대 이전에는 석·박사학위 논문에서 인상형성의 논문이 2편, 대인지각의 논문 1편이 발표되었고 1980년대에는 인상형성의 논문이 3편, 대인지각의 논문 1편, 인상형성의 평가차원 논문이 4편으로 8편에 불과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이인자¹⁸⁾의 논문에서와 같이 복식사회심리학에서는 성격과 복식행동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의 논제를 차지하여 인상형성이론에 대한 논문은 극히 적은 수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1994년에는 인상형성이론 연구에서 대인지각의 논문이 3편, 인상형성의 논문이 15편, 인상형성의 평가차원 논문이 10편으로 총 31편의 인상형성이론연구가 발표됨으로써 인상형성이론 연구가 급격히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1995년~1998년에는 대인지각의 논문이 8편, 인상형성의 논문이 15편, 인상형성의 평가차원 논문이 13편으로 총 36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인상형성이론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계적으로 보면 1998년까지 발표된 78편의 논문 중 39.7%인 31편의 논문이 90년대 초에 발표되고 46.2%인 36편의 논문이 90년대 후반에 발표된 것으로 90년대에 들어와서 인상형성이론연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78편의 논문 중 인상형성의 논문이 35편으로 전체의 44.9%를 점하고 다음으로 평가차원의 논문이 30편으로 38.5%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복식사회심리학분야의 논제로써 인상형성이론이 주요한 연구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인상형성이론 연구의 논제별 연구동향분석

이 장에서는 복식사회심리학분야 중 인상형성 및 대인지각에 관련된 학위논문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논제를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1) 대인지각이론

대인지각에 대한 연구는 주로 90년대 이후에 많이 연구된 바 김재숙 등¹⁹⁾은 유행성 및 착용자의 체형과 관련지어 의복범주가 젊은이의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임숙자²⁰⁾는 여대생의 캠퍼스 웨어를 중심으로 의복의 적절성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고애란 등²¹⁾은 남성정장을 연구대상으로 관찰자의 자기모니터링과 직업적합성 지각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한미숙 등²²⁾은 면접상황에서 여성지원자의 평가시 신체적 매력도와 의복

18)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I," 한국복식학회지, 30(5), (1996), pp.19-40.

19) 김재숙, 김희숙, "의복범주가 젊은이의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유행성 및 착용자의 체형과 관련지어," 한국의류학회지, 16(4), (1992), pp. 371-377.

20) 임숙자, 박성은, "의복의 적절성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학생의 캠퍼스 웨어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2), (1995), pp.264-277.

21) 고애란·이은미·홍희숙, "남성정장의 의복단서와 관찰자의 자기모니터링이 직업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1), (1995), pp.211-222.

22) 한미숙·성화경·유혜경, "면접상황에서 신체적 매력도와 의복이 여성지원자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9(4), (1995), pp.590-601.

23) 전호경·황선진, "직장상황 입산부의 의복스타일과 직업유형이 호의도와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6), (1998), pp.942-952.

변인이 주는 영향력에 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전호경 등²⁴⁾은 직장과 입산부라는 특수상황에서의 의복스타일과 직업유형을 호의도와 업무수행능력 평가와 관련지어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대인지각이론의 연구는 90년대 초반에는 변인과 연구대상이 복식사회심리학 분야의 연구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나 90년대 후반에서는 남성복, 면접상황, 직장여성, 임신복 등의 매우 세분화된 내용이 논제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인상형성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에는 1~2편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 들어 인상형성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1990년~1994년에는 5편, 1995년~1998년에는 10편으로 인상형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 짐을 알 수 있었다.

연구내용으로는 이현화·박찬부 등²⁵⁾, 강혜원²⁶⁾은 여자한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서양복 중심의 연구동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미숙²⁶⁾, 이향미²⁷⁾, 이은하²⁸⁾ 등은 교육상황에 있어 교육자 및 학생의 의복단체에 의해서 형성하는 인상에 대하여 연구한 바, 이미숙은 아동복의 격식차림, 음양수준, 아동의 체형을 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고 이향미는 남자교사 의복의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을 변인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연구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하위변인을 사용하고 있는 바 남미우·강혜원 등²⁹⁾은 관찰자변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관찰자 의복태도와 관찰자의 연령에 따른 인상형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반면에 착용자의 의복 및 체형을 변인으로 한 연구는 인상형성연구의 중심논제로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90년대 초반기에는 외모변인의 지적인상형성, 의복의 친숙성과 의복인상평가, 의복 및 얼굴변인과 인상형성 등과 같이 매우 포괄적으로 변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변인을 세분화하여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의복디자인 요소의 변화에 따른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용휘³⁰⁾는 디자인 요소 중 스커트 및 원피스 폭, 길이 및 소매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와 이것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이주현 등³¹⁾은 의복형태와 색채의 변화에 의한 인상형성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이인자 등³²⁾은 의복디자인 요소변화에 의한 착시현상이 얼굴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이명희 등³³⁾은 장신구와 재킷 색의 변화에 따른 인상형성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다.

- 24) 이현화, 박찬부, "의복단체, 지각자변인이 여자한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I-의복단체를 중심으로," 복식학회지, 32, (1997), pp.313-336., "의복단체, 지각자변인이 여자한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II-지각자 변인을 중심으로," 복식학회지, 37, (1998), pp.119-132.
- 25) 강혜원, 고예란, "여자한복의 인상형성연구-디자인 변형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1991), pp.211-227.
- 26) 이미숙, "의복의 격식차림, 음양수준 및 아동체형이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27) 이향미, "남자교사 의복의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대전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28) 이은하, "교사와 학생간의 인상형성-지적특성과 정적특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29) 남미우, 강혜원, "상황의복단체 및 관찰자의 연령이 남자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3), (1994), pp.311-326., "관찰자의 의복태도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2), (1997), pp.241-256.
- 30) 이용휘, "스커트 폭, 길이 및 소매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31) 이주현, 조광호,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I)-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1995), pp.747-764.,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II)-드레스 팬츠와 블라우스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6), (1995), pp.984-994.
- 32) 이인자, 이미정, 김준범, "의복디자인 요소변화에 의한 착시현상이 얼굴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997), pp.275-289.
- 33) 이명희, 강승희, "재킷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1998), pp.324-337.
- 34) 나광주,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광주지역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그리고 의복변인 외에도 체형변인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나광주³¹⁾의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인상형성과 문영보³²⁾의 얼굴변인과 인상형성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있다. 그 외에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착용자의 연령과 성격, 빈도 등과 관련한 연구들이 있었다.

특히 여성복 중심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1992년~1995년의 기간에는 남성복과 아동복, 수도복 등의 다양한 종류의 의복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은미³⁶⁾, 강혜원³⁷⁾, 김인숙³⁸⁾, 고에란³⁹⁾ 등은 남성복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남미우⁴⁰⁾ 등은 한국카톨릭 여성수도자들의 수도복과 머리모양에 따른 인상형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미숙 등⁴¹⁾은 아동복과 체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상형성은 대인관계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따라서 인상형성에 대한 의복의 영향은 의류학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3) 인상형성의 평가차원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에는 1편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 들어 인상형성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1990년~1994

년에는 10편, 1995년~1998년에는 11편으로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에 대한 연구도 인상형성과 함께 더욱 활발해 짐을 알 수 있다.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의 연구는 의복요소 조합에 따른 이미지에 대한 평가로 의미분법 차원 연구로써 인상형성에 있어서 객관화된 척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1988년 의미미분척도법에 의한 양장과 한복의 이미지 비교평가라는 논제로 시작된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의복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착용자 자신의 얼굴이나 한복, 여성복, 남성복 등 의복의 종류 이미지에 관한 연구로 전체적인 이미지의 인상형성 평가차원을 다루었으며, 1990년 후반기에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의복 이미지를 좌우하는 의복디자인의 형태와 모양이 다양하게 다루어짐으로써 의복디자인 요소의 인상형성 평가척도를 다루고 있다.

강혜원·이주현⁴²⁾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한복의 의미에서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으로 연구하였으며, 정인희·이은영⁴³⁾은 의복이미지의 구성요소와 평가차원, 의복이미지와 계층구조에 대한 연구로써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에서 연구하였다. 또한 이경희 등⁴⁴⁾은 의복자극물에 따른 인상형성평가와 한국적 의복이미지의 구성요인과 디

- 35) 문영보,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36) 이은미, "남성 정장 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37) 강혜원, 이은미, "의복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남성정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2), (1994), pp.197-210.
- 38) 김인숙, 신소진,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인상형성," 한국의류학회지, 18(4), (1994), pp.501-514.
- 39) 고에란, 이선경, "남성의복착용자의 의복유형과 얼굴의 매력성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I)-직업추론 및 의복인상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2), (1995), pp.230-241.
- 40) 남미우, 조정미, "한국카톨릭 여성 수도자들이 수도복과 머리모양의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1(4), (1997), pp.245-265.
- 41) 이미숙, 김재숙, "아동의 의복과 체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국민학교1학년 담임교사중심," 한국 의류학회지, 19(6), (1995), pp.1017-1026., "아동의 의복과 체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I)-체형에 따른 의복변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4), (1997), pp.357-370.
- 42) 강혜원, 이주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I)-한복중심," 한국의류학회지, 14(1), (1990), pp.31-45,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II)-한복중심," 한국의류학회지, 14(2), (1990), pp.73-84.
- 43) 정인희, 이은영, "의복이미지의 구성요인과 평가차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4), (1992), pp.379-391., "의복이미지의 계층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4), (1993), pp.529-538.
- 44) 이경희, 김희경, "의복자극물과 제시방법에 따른 시각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7(3), (1993), pp.428-432., "한국적 의복이미지의 구성요인과 디자인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1(3), (1997), pp.542-553.

자인 특성을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으로 연구되었고 상반되는 의복이미지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도 하였다. 박소향 등⁴⁵⁾은 남자 대학생의 여성이미지 평가를 연구하였고, 조은영 등⁴⁶⁾의 여성의 신체노출의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1988년부터 1995년에는 의복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으로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한편 1995년 이후에는 대부분 의복의 형태와 모양의 의복변인이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으로 자세히 다루어졌는데 이를 살펴보면 최은영⁴⁷⁾은 격자무늬와 물방울 무늬의 크기 배열, 명도대비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박혜련 등⁴⁸⁾은 의복디자인 구성선에 따른 색채의 착시효과를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이은영 등⁴⁹⁾은 X라인의 실루엣 이미지가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으로 다루어졌고, 남성복에서의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으로는 강경자 등⁵⁰⁾은 넥타이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를 평가하는 요소로서 연구되었으며 한정숙 등⁵¹⁾은 테일러드 자켓의 칼라길이, 단추수, 심글과 더블의 변화를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으로 연구되었다. 이해숙 등⁵²⁾은 한복의 인상형성의 평가차원에서 여자한복의 복식 색과 색조합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인상형성분야의 논문들은 대부분의 논문이 질문지를 사용한 반면 자극물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컴퓨터의 다량생산과 보급으로 인상형성의 평가연구에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가 도입되었다.

연구된 내용을 보면, 오주연 등⁵³⁾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머리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를 평가차원으로 연구하였고, 최정 등⁵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의복의 칼라와 소매의 조합이 인상형성 평가차원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의복디자인 요소로써 칼라, 소매, 의복디자인의 선, 실루엣 등의 의복 형태요소와 디테일, 색, 무늬, 칼라길이, 단추수 등의 의복의 모양요소가 의복의 이미지 평가차원으로 연구됨을 분석할 수 있었다.

IV. 결 론

1936년 Northrup의 양과 음의 개념을 의복과 성격에 도입한 이래 1970년대 이전에는 의복이 개인적 특성을 지각하도록 하는 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의복이 변함에 따라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첫인상이 변화함을 밝히는 등 의복은 사회적 인상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1970년 이후에는 의복에 대한 시각적 반응 측정, 옷차림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의복의 형태와 색이 이미지에 미치는 효과 연구를 비롯하여 관리직과 비관리직, 여성과 남성, 교사 및 학생의 의복이 개

45) 박소향, 김인숙, "남자대학생의 여성이미지 평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2), (1994), pp.170-179.

46) 조은영, 홍병숙, "여성의 신체노출의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8(4), (1995), pp.723-737.

47) 최은영, "무늬의 크기, 배열, 명도대비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24(5), (1995), pp.193-203.

48) 박혜련, 이춘계, "의복디자인 구성선에 따른 색채의 착시효과," 복식학회지, 24(5), (1995), pp.205-216.

49) 이은영, 이경화, "실루엣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X라인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0(4), (1996), pp.631-646.

50) 강경자, 임지영, "넥타이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5), (1996), pp.753-768.

51) 한정숙, 류숙희,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칼라길이, 단추수, 심글, 더블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5), (1997), pp.1-10.

52) 이해숙, 김재숙,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I)-여자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1998), pp.234-345.,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II)-여자한복의 상·하 색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8), (1998), pp.523-545.

53) 오주연, 권영숙, "머리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 요인과 분석-컴퓨터그래픽 시뮬레이션을 이용," 한국의류학회지, 16(3), (1992), pp.243-250.

54) 최정,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의복의 착시효과와 이미지 연구-칼라, 소매의 조합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0(5), (1996), pp.673-692.

인적 특성과 지각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연구가 전개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의복과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인상형성이론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상형성이론 연구의 연대별 변화 추이를 보면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는 복식사회심리분야에서 성격과 복식행동 위주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는 8편 이하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인상형성이론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에 발표된 논문보다 9배에 가까운 70편이 연구됨으로서 인상형성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 복식사회심리분야의 논제로써 인상형성이론이 주요한 연구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또한 학회지와 석·박사논문에서의 인상형성이론 연구분포는 다수의 논문이 게재된 한국의류학회지 및 석·박사논문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며 한국복식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에서는 인상형성이론의 논문이 일부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인상형성이론 연구의 주제별 분석을 보면 90년대 초반기에는 외모변인의 지적인상형성, 의복의 친숙성과 의복인상평가, 의복 및 얼굴변인과 인상형성 등과 같이 매우 포괄적으로 변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후반기로 갈수록 점차 변인을 세분화하여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의복디자인 요소인 소매, 칼라, 소매, 의복디자인의 선, 실루엣 등의 의복 형태요소와 디테일, 색, 무늬, 칼라길이, 단추수, 스커트 및 원피스외곽, 길이 등의 의복의 모양요소의 변화에 따른 의복 이미지가 변화되며 이것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되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의복에 대한 인상형성의 선행연구들을 연대별, 논제별로 파악하여 그 동향을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인상형성이론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보화시대를 맞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가 증가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인상형성이론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보다 확대·세분화하고 의복의 종류도 다양화하여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순심 외3, 복식사회심리학, 경춘사, 1995.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1990.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1985.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수학사, 1984.
 神山進, 被服心理學, 東京: 光生館, 1987.
 加藤雪枝, 山藤子, 纖維製品消費科學, 23(4), 1982.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1권-22권8호, 1977-1998.
 한국복식학회, 한국복식학회지, 제1권-제41권, 1977-1998.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제1호-제130호, 1959-1998.
 고애란,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권영애, 의복의 유행단계에 따른 지각반응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권혜숙,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의 영향, 상명대학교 논문집, 25, 431-442, 1990.
 김미영, 생활양식 유형과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김미숙, 의복의 격식차별, 음양수준 및 아동체형이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나광주,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광주지역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남미우,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 착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문영보, 의복에 대한 인상과 성격에 대한 인상형성차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구전문대 논문집, 2, 169-180, 1991.
 문영보, 의복 및 얼굴변인인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문영보, 신체노출정도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

- 향, 신구전문대 논문집, 12, 329-341, 1993.
- 박길순, 직물 문양의 기호와 내향성-외향성 성격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이경희,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이미숙, 의복의 격식차림, 음양수준 및 아동체형이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은미, 남성 정장 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은하, 교사와 학생간의 인상형성- 지적특성과 정적특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응희, 스커트 폭, 길이 및 소매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주현,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이향미, 남자교사 의복의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전지역 남, 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Kaiser,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McMillan Publishing Company, N.Y., 1985.
- Anderson, N.H., Application of a linearserial model to a personality-impression task using special pres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354-362, 1968.
- Asch, E., Forming impressions.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41(3), 258-290, 1946.
- Douty, H.I., Influence of clothing on perception of persons. *Journal of Home Economics*, 55(3), 197-202, 1963.
- Hamid, P.N., Style of dress as a perceptual cue in impression formation. *Perceptual and Moot Skills*, 26, 904-906, 1968.
- Lennon, S.J., & Miller, F.G., Salience of physical appearance in impression form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 (2), 95-104, 1984.
- Osgood, C.E., Suci, G.J., & Tannenbaum, P. H.,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5, in Sears, D.O., Freedman, J.L., & Peplau, A., *Social Psychology*(5th ed.), New Jersey : Prentice-Hall, 1957.
-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than, P.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4), 283-294, 1968.
- Thorton, G.R., The effect of wearing glasses upon judgements of personality traits of persons seen briefl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28, 203-207, 1944.